



캠프 데이비드 정신으로부터 미일한의 이익을 확보하려면 한국을 쿼드에 참여시켜야 한다

BY 조슈아 핏

조슈아 핏 (jfitt@cnaas.org)은 신미국안보센터 (CNAS) 인도태평양 안보 프로그램 부연구원이다.

*PacNet*시리즈는 미일한 3국 차세대 지도자 대화의 일환으로 이 중요한 파트너십을 어떻게 육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창의적 사고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버지니아의 따뜻한 8월 오후, 무성한 물푸레나무 아래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 윤석열 대통령이 역경에 대한 그들의 대응이 단합임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2018년 이후 한일 관계의 최악의 상황을 특징으로 하는 교착 상태와는 대조적으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전례 없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협력을 전제로 한 한미일 3국 관계의 방향을 제시한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의 이니셔티브 중에는 3국 간 탄도미사일 방어 및 대잠수함전 훈련을 정규화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는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기록적인 도발 미사일 시험 속도에 대한 대응이자 3국 관계를 뒷받침하는 이해관계를 극명하게 상기시키는 것이다.

인도 태평양의 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전환점은 지역 질서의 지속가능성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의 한일 화해는 유망하지만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에 과거 한미일 3국의 진전이 유사한 돌파구를 맞은 이후 그랬던 것처럼 다시 흐트러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한국은 공통의 비전과 실행 가능한 의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난 수십 년간의 반복된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데 확실히 더 가까워졌다. 한일 양국 간 긴장이 다시 살아날 때에도 살아남을 관계를 향해 계속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퇴보로 인한 정치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동시에 이러한 협력 관계가 변영의 원천이자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국내 국민에게 입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는 인도 태평양을 보존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갖춘 보편적인 의제가 이미 쿼드(호주, 인도, 일본, 미국)의 형태로 존재한다. 쿼드 활동에 대한 한국의 참여는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 그리고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노력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함으로써 한일 양국간 난기류 속에서도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지역 내 변동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쿼드의 부활은 안정성을 위한 중대한 승리로 두드러진다. 단 몇 년 만에 쿼드는 인도태평양 다자간 협력의 중심지이자 바이든 행정부 지역 전략의 핵심 기둥으로 떠올랐다. 쿼드는 지역 내 선의를 위한 주요 세력입니다. 쿼드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 회원들의 비교 우위를 활용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야심 찬 의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의제는 2000년대 중반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난 구호에 관한 쿼드의 기원에서 사이버 보안, 기후 변화, 인프라, 핵심 기술 및 신형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실무 그룹을 통해 현재 상태로 성장했다.

한국이 가까운 시일 내에 공식적으로 쿼드에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참여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2020년과 2021년 쿼드가 활성화되는 동안 한일 긴장이 지속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쿼드에 대해 거리를 두면서 한국은 당연스럽게도 출발주자로 쿼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제 한일 관계가 좋아지고 윤 대통령이 특정 실무그룹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쿼드 국가들은 그룹이 여전히 추진력을 얻고 목적을 정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국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첫 번째 지도자급 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실무 그룹의 노력을 2년 동안 구축한 후, 쿼드는 이제 곧 한국과 같이 능력이 있고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특정 이니셔티브에 대한 파트너십 및 협의 기회를 고려하기 시작해야 한다.

우선 쿼드는 한국 정부에 실무 그룹 회의에 참관인을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쿼드 포트폴리오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 쿼드 국가들과 양자 간 협력을 맺고 있다. 한국 정부의 재정 자원, 기술적 노하우, 지역 내 긍정적인 평판은 쿼드가 활동을 확대하고 특히 한국이 이미 세계 선두주자인 핵심 기술과 신형 기술 분야에서 더욱 설득력 있는 의제를 구축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줄 것이다. 한편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쿼드는 한반도 밖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여 '글로벌 중추 국가'로 변모하려는 인도태평양 외교 정책 야망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다.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이자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를 주도하며, 또한 기술 강국이라는 한국의 입지를 고려

할 때, 한국의 쿼드 참여는 쿼드의 전력 승수일 뿐만 아니라 한미일 3국 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을 이 지역의 가장 유망한 민주 연합에 포함시키는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위축된 한미일 3국 관계의 결합 조직을 재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쿼드를 통해 일본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건설적인 다자간 환경에서 상호 작용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개인적인 유대를 구축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상호 공유하는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동으로 행동하는 것은 상호 신뢰를 높이고 이해를 촉진함으로써 보다 협력적인 양자 파트너십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한일 관계의 방향은 습관적으로 변하지만 쿼드는 한일 관계에 구조적인 지원을 가져올 수 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바탕으로 미국 정부, 일본 정부, 한국 정부의 지도자들은 최근 3국 관계의 상승세를 활용하여 공유하는 야망과 공동의 목적을 선포했다. 이러한 목표에 쿼드의 포괄적인 노력을 추가하면 3국의 협력 범위가 향상되고 그 미래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쿼드가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회원에게 폐쇄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쿼드는 그동안 쿼드의 목표를 지원할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와의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 처음에는 관찰자 수준에서라도 한국을 포함시키면 더 유능한 쿼드, 더 안정적인 3국 관계,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으로 이어질 것이다.

*PacNet*의 논평과 답변은 해당 작성자의 견해를 나타냅니다. 대안적인 관점을 언제나 환영하고 장려합니다.